

# Global Trade Report

## 2018년 1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개요

---

- 2 | 2018년 1월 수출입 동향
- 2 | 지역별 수출 동향
- 3 | 품목별 수출 동향
- 3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 4 | 중국
- 6 | 미국
- 8 | 베트남
- 10 | 일본
- 12 | 인도
- 14 | ASEAN
- 16 | EU
- 18 | 중남미
- 20 | 중동
- 22 | CIS

- 24 | 참고1 : '18년 1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
- 25 | 참고2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
- 26 | 참고3 :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지역별 수출 실적

## 요 약

- **(1월 수출입 동향)** 수출 492.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3%), 수입 455.9억 달러(+21.1%), 무역수지 36.3억 달러 흑자 기록

< 1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 구분   | 2017년       |             |             |               | 2018년       |
|------|-------------|-------------|-------------|---------------|-------------|
|      | 1월          | 11월         | 12월         | 1~12월         | 1월          |
| 수 출  | 403 (+11.0) | 497 (+9.7)  | 490 (+8.8)  | 5,737 (+15.8) | 492 (+22.3) |
| 수 입  | 376 (+20.2) | 420 (+12.8) | 435 (+13.6) | 4,785 (+17.8) | 456 (+21.1) |
| 무역수지 | 27          | 77          | 55          | 952           | 36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글로벌 경제성장 및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쏘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對중국·ASEAN·인도 수출이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 기록

| 국가    | 호조품목                     | 부진품목                        |
|-------|--------------------------|-----------------------------|
| 중국    |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석유제품    |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부품, 가전      |
| 미국    |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      |
| 베트남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 자동차, 가전, 컴퓨터                |
| 일본    |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선박류        |
| 인도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자동차부품     |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가전, 선박류       |
| ASEAN | 반도체,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일반기계 | 자동차, 가전, 컴퓨터                |
| EU    |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 자동차부품,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
| 중남미   |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철강     |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
| 중동    | 자동차, 선박류, 석유화학, 철강       | 일반기계, 가전,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
| CIS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 석유제품                        |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 등 9개 품목이 두 자리 수 증가, 특히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 기록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1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 비중은 대기업(60.0%), 중견기업(20.9%), 중소기업(18.3%) 순이며,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전년동월(40.0%) 보다 0.8%p 감소하였음.

\* 수출증감률(2018년 1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22.6%) > 대기업(22.5%) > 중견기업(17.2%)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1월(40.0%) → 2018년 1월(39.2%)

## I. 개요

- **(1월 수출입 동향)** 수출 492.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3%), 수입 455.9억 달러(+21.1%), 무역수지 36.3억 달러 흑자 기록
-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 달성,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 '17.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리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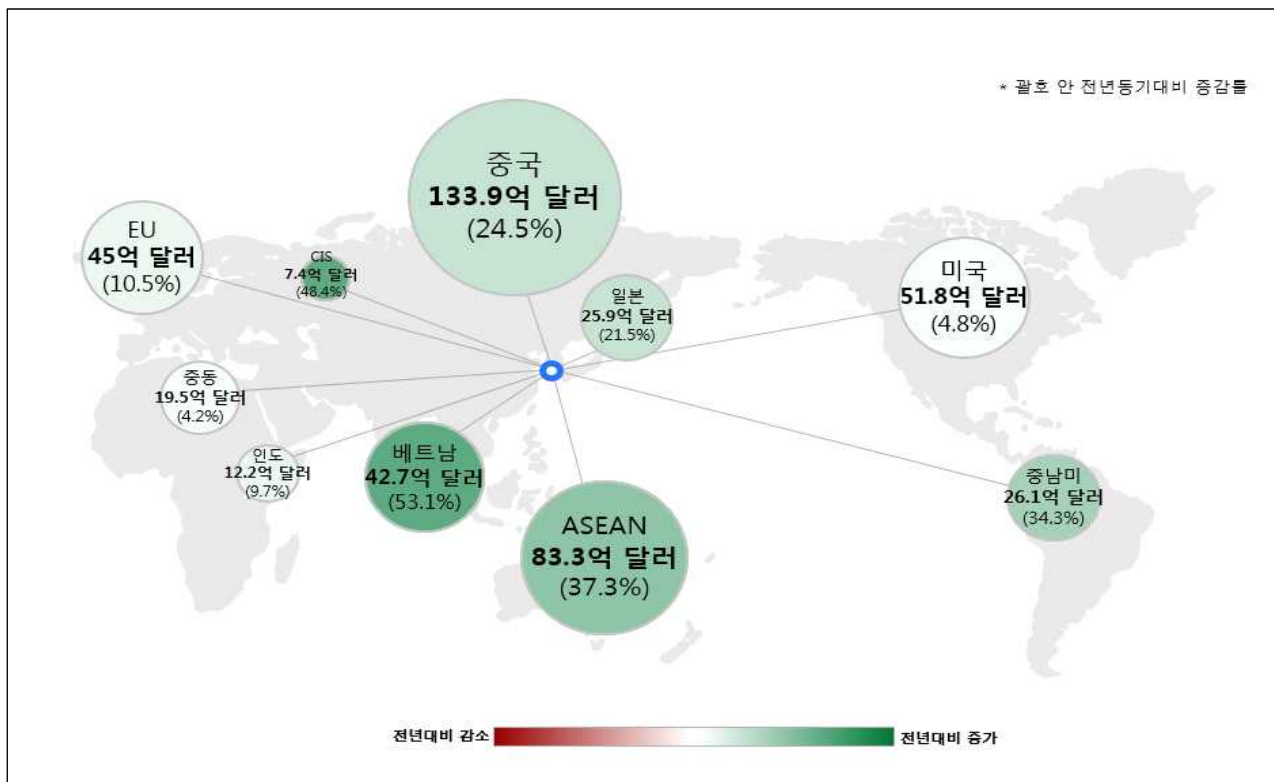
### < 1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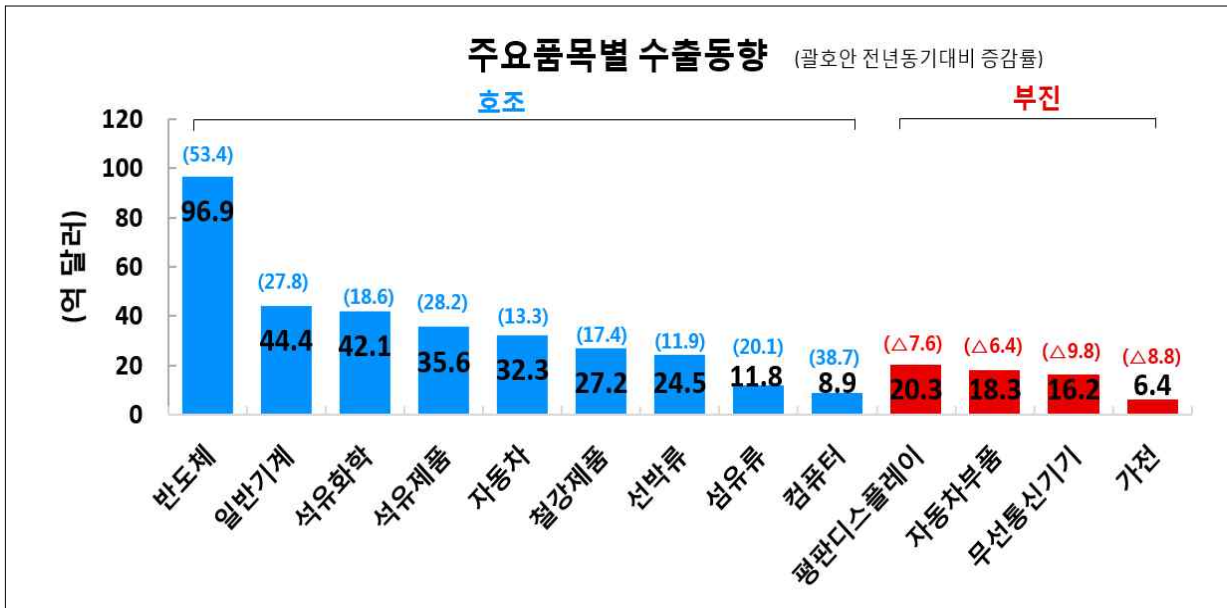
| 구분   | 2017년       |             |             |               | 2018년       |
|------|-------------|-------------|-------------|---------------|-------------|
|      | 1월          | 11월         | 12월         | 1~12월         | 1월          |
| 수출   | 403 (+11.0) | 497 (+9.7)  | 490 (+8.8)  | 5,737 (+15.8) | 492 (+22.3) |
| 수입   | 376 (+20.2) | 420 (+12.8) | 435 (+13.6) | 4,785 (+17.8) | 456 (+21.1) |
| 무역수지 | 27          | 77          | 55          | 952           | 36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글로벌 경제성장 및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쏠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對중국·ASEAN·인도 수출이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 기록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리 수 증가, 특히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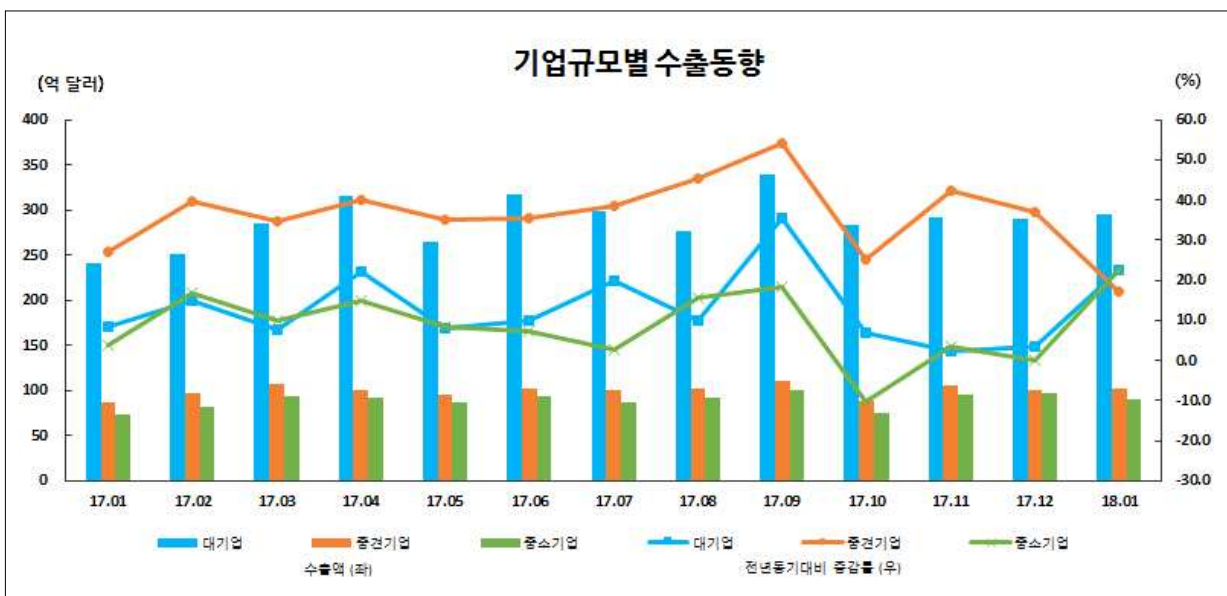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1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 비중은 대기업(60.0%), 중견기업(20.9%), 중소기업(18.3%) 순이며,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전년동월(40.0%) 보다 0.8%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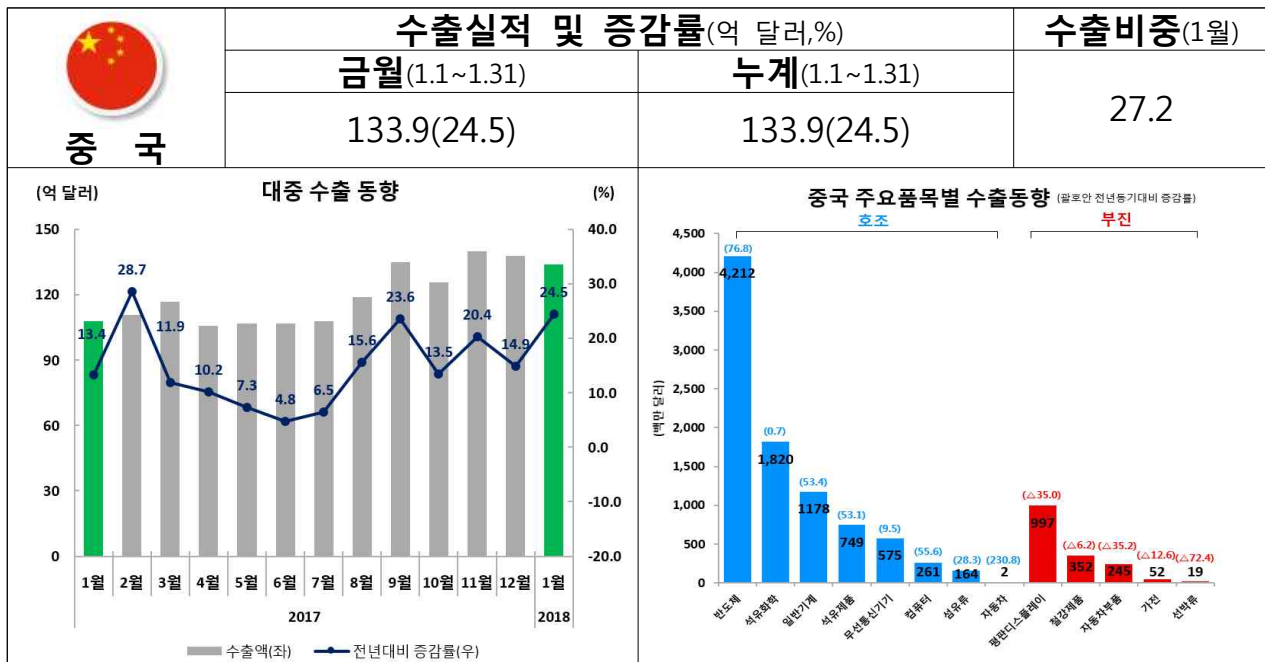
\* 수출증감률(2018년 1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22.6%) > 대기업(22.5%) > 중견기업(17.2%)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1월(40.0%) → 2018년 1월(39.2%)



\*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2.21 기준 최신 정보)

##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17년 GDP증가율 6.9%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반등하는 등 예상 외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비중 높은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1월 對중국 수출은 24.5%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 평판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은 수출 감소

- **반도체(76.8% ↑)** : 중국 정부의 IT 지원정책 및 반도체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자동차, 헬스기기, 웨어러블기기 등 반도체 적용 범위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중국내 반도체 수요 증가 (중국 반도체산업협회)
- \*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시장 호황은 올해까지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은 작년 4,190억 달러보다 7.5% 증가한 4,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올해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은 약 18% 정도 하락하겠지만,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IHS / 가트너)
- \*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 증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 및 IT 업체 확대에 고성능 고사양 반도체 수요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디램익스체인지)

- **일반기계(53.4% ↑)** : 국무원이 제조 강국 전략의 일환으로 공업 자동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표준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기계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

#### 현장 정보

- \* 중국 기계 산업이 산업 규모 대비 제품 품질 및 기술 수준이 낮고 전체 기계 기업 중 공업 전문화(시간, 속도, 정밀도 등 생산요소 체계화 관리 실현 비중)를 실현한 기업 비중이 15~30%에 불과함. 이는 선진국(75~95%) 대비 크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업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선진기계 및 기술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중국기계공업연합회)
- \* 중국의 기계 생산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첨단 설비의 핵심 부품들은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음. 구미, 일본 등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함.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제품은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함. (Nanjing Technical Electrical Equipment Co., Ltd )

- **석유제품(53.1% ↑)**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 증가

#### 현장 정보

- \* 원유가격 추이 (달러/배럴, 한국석유공사)  
 두바이유 : '17.1월(53.71) → '17.12월(61.61) → '18.1월(65.85)  
 . 브렌트유 : '17.1월(55.45) → '17.12월(64.09) → '18.1월(68.70)  
 . WTI유 : '17.1월(52.61) → '17.12월(57.95) → '18.1월(6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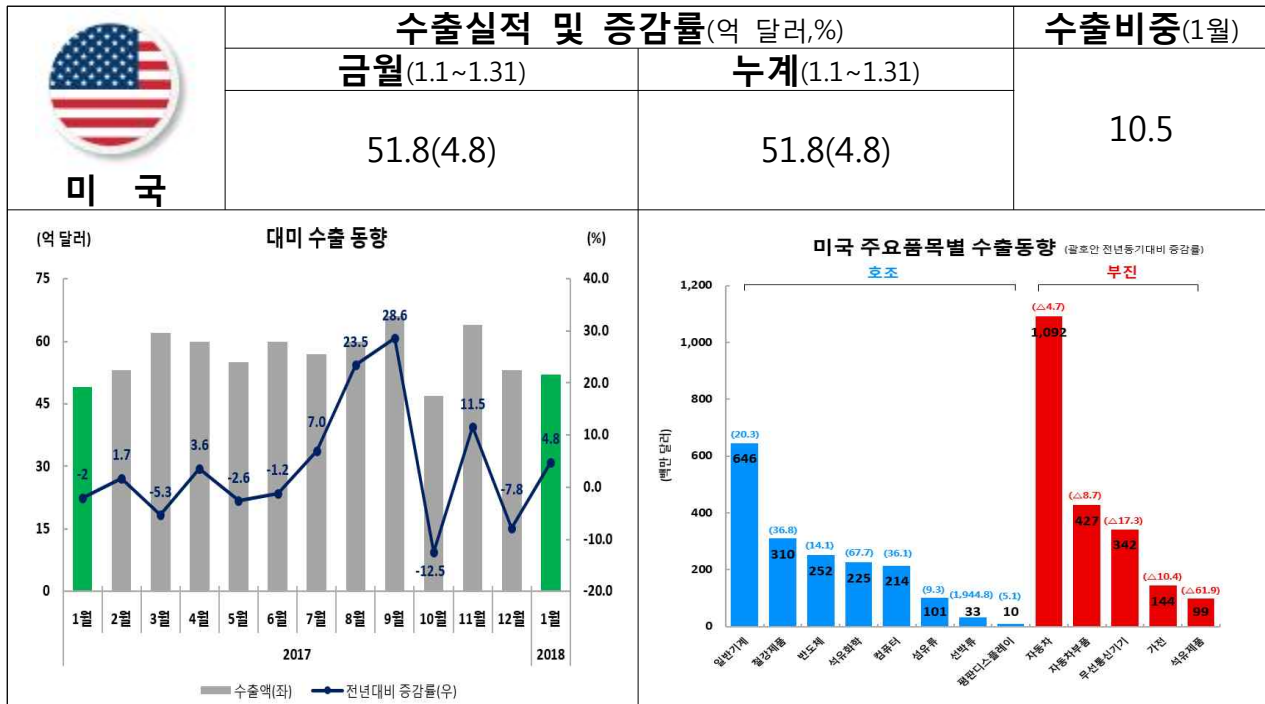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35.0% ↓)** : 2월 춘절 연휴 등 비수기 도래, 중국 업체의 공급 증가, TV 패널 가격 소폭 하락 등으로 수출 부진

#### 현장 정보

- \* 32인치 및 55인치 패널은 1~2%의 하락세를 보였고, 40인치, 43인치, 49인치 패널은 4~6% 하락세로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IHS)
- \* 2017년 대형 패널 공급은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대형패널의 전 세계 공급량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WitsView)
- \* 징둥팡(BOE)의 허페이 G10.5 라인은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했고, 2018년 말 화싱광덴(华星光电)의 선전 G11 라인이 가동될 예정임에 따라 55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특이 동향)

- 장쑤성 <반도체 산업 오염물 배출 표준> 시행 준비 중
  - '18년 환경보호세 도입 이후 중국 전역에서 정부 정책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쑤성은 1월 성(省)내 반도체 업체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배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엄격한 감독관리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동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산업생산·소비·고용 상황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 對미국 수출은 비중 큰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4.8% 증가율 기록하여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철강제품·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수출은 증가, 자동차·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부진

- **반도체(14.1% ↑)** : 현지 수요 및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낸드플래시와 DRAM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DRAM 부문은 스마트폰과 시스템 운영용 서버 수요에 의해 당분간은 상승된 가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외 주문형 반도체, 비광학 센서,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부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 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 및 스마트폰과 PC시장 동반위축 요인에 의한 가격 하락 등 메모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불안 요소 상존

- **석유화학제품(67.7% ↑)**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중국산 수출물량 감소로 한국산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상승. 에틸렌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벤젠 4.8%, 부타디엔 15.7% 상승 수준 (Datastream)
- \*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내수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반사이익 효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자동차(4.7% ↓)** : 미국내 전체 신차 판매 지속 감소 및 완성차간 경쟁심화,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미국 전체 신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의 자동차 생산업체 위기 이후 2017년도가 처음으로 판매 감소된 해로 기록됨. 연말 판매에 각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인센티브 제공 증가로 판매 증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미 소비자들은 비싼 신차 보다 리스가 막 끝나거나 3-4년 된 중고차량에 대한 구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신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현대차 딜러)
- \* 글로벌 자동차 총수요 둔화, 신차 경쟁심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완성차 대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생산·판매량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디트로이트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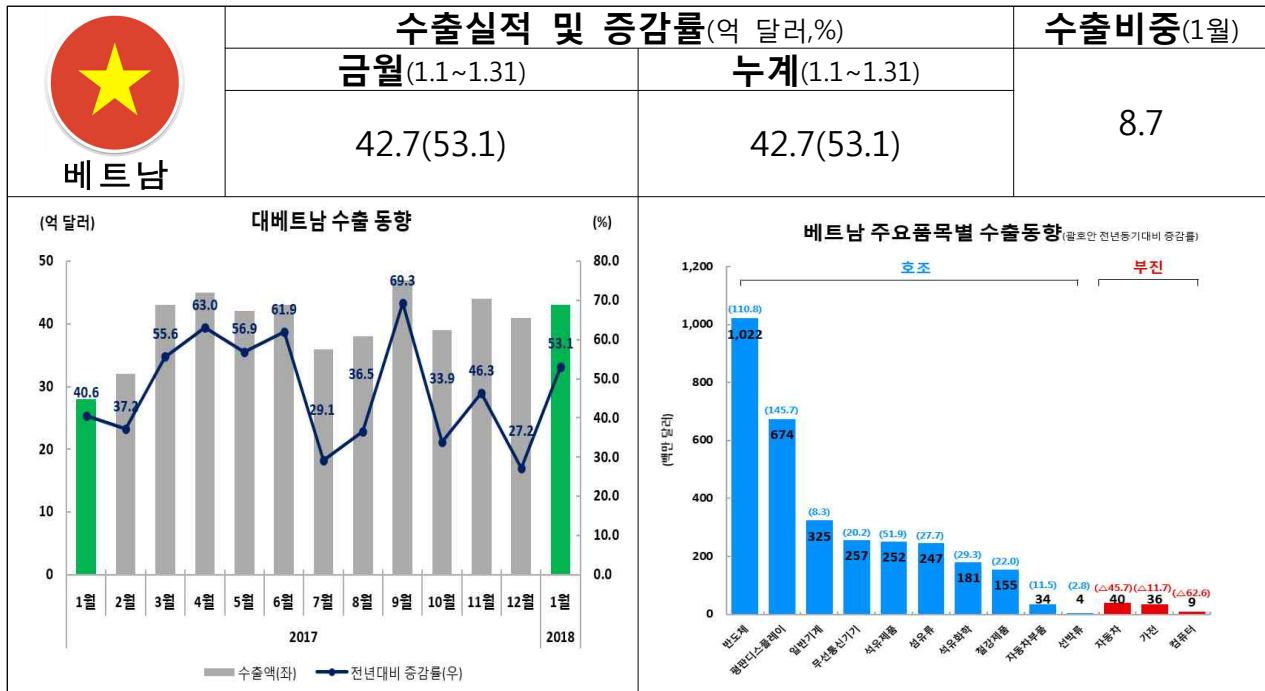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17.3% ↓)** : 신제품 대기 수요 및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Huawei는 스마트폰의 생산을 늘리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 중임. Samsung은 2018년 2월 신제품 발매 예정으로, 이에 기존 Samsung 사용자들의 구매대기 수요가 있음. (Bestbuy 관계자)
- \* 2018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pple 서플라이어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 (특이 동향)**

- 가정용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최종결정(1.22)
  - (세탁기) 세탁기 120만대 초과 물량/부품 5만개 초과 물량에 50% 관세 부과, 3년간 매년 5%씩 인하
  - (태양광) 모듈 전제품/셀은 25기가 와트 초과 물량에 30% 관세 부과,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17년 GDP증가율 6.81%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 '18년에도 제조업과 수출 호황에 힘입어 고성장세 전망되는 가운데 1월 對베트남 수출은 현지 생산기지向 부품기계 등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53.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수출 비중 높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일반기계 등 10개 품목 수출 호조, 자동차·가전·컴퓨터는 수출 부진
  - 반도체(110.8% ↑) : 2-3월 신제품(갤럭시 S9) 출시 계획 등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지속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對베트남 수출 증가. 특히 갤럭시노트8, 갤럭시A8 등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지 스마트폰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전기전자기업들의 제조활동에 힘입어 2017년 한 해 베트남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대비 31.4%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
- \* 또한 2018년 2~3월 신제품(갤럭시S9) 출시 계획에 따라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지속 확대 중이며, 부품 협력업체들은 베트남 설 연휴기간(2/14~2/20)에도 당직 근무 체제를 유지함. (현지 물류 협력사 USA logistics 관계자)

- **평판디스플레이(145.7% ↑)** : 현지 전자기기 제조업 성장에 따른 각종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및 OLED 탑재 트렌드로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OLED, LCD 모두 베트남 수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휴대폰(전년대비 생산량 7.4% 증가), TV(30.5%) 등 현지 전자기기 제조업 호황으로 각종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베트남 통계청)
- \* 동시에 현지 디스플레이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화면·OLED 탑재가 트렌드로 자리잡아 베트남 OLED 수출이 지속 증가 추세임.

- **일반기계(8.3% ↑)** : 베트남 제조업 호조 및 현지 한국기업들의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현지 제조업 호조에 따른 기계부품 수요 증가로 대베트남 수출 증가. 2017년 한 해 베트남 제조업은 14.4%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2011년 이래 최고치임. (베트남 통계청)
- \* 또한 한국의 베트남향(向) 제조업 투자 증가가 베트남 기계설비 수출 증가로 이어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기계설비는 현지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임. 참고로 '17.1~12월 한국의 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약 63억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함.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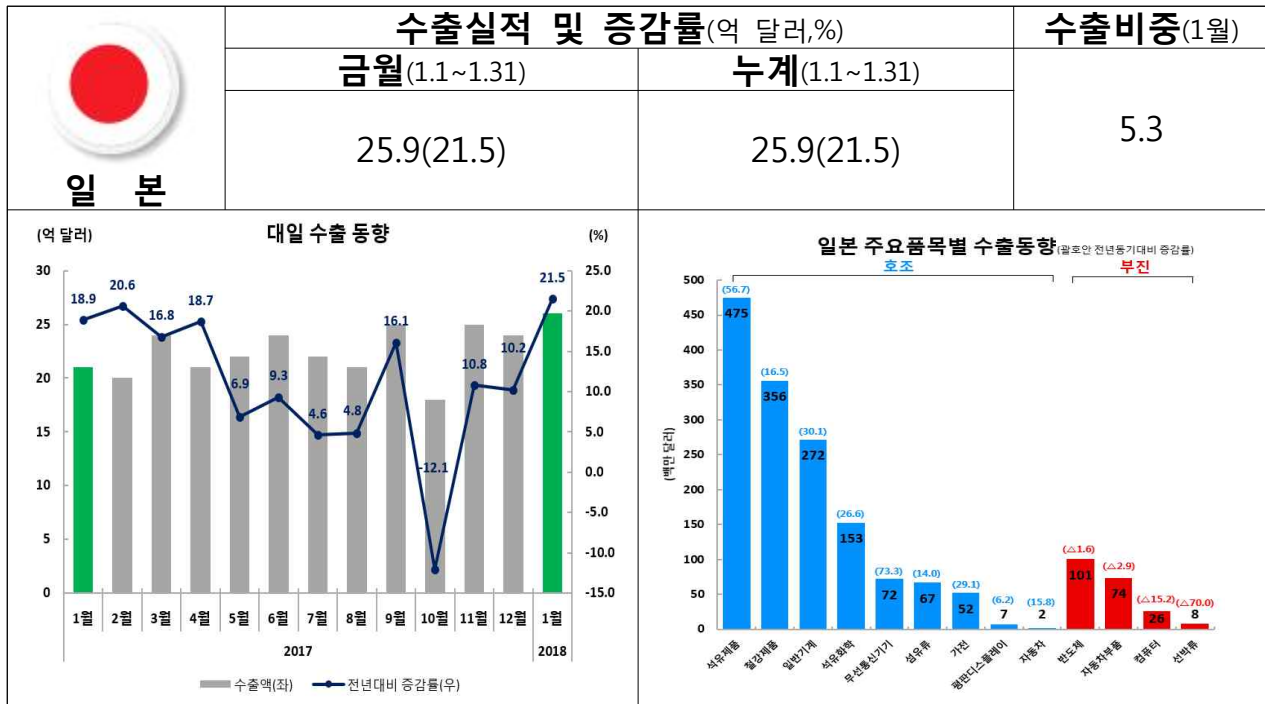
- **가전(11.7% ↓)** : 현지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라인 가동 지연 및 시장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TV(-33.9%), 냉장고(-58%), 세탁기(-61.5%) 등 현지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요 품목들 모두(부품 중심) 베트남 수출이 감소함. 이는 삼성전자(남부 호치민), LG전자(북부 하이퐁)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우리 대표 기업들의 생산라인 정상 가동이 다소 지연되면서 부품 수입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Hitachi 베트남 관계자)
- \* 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기업들이 베트남 전자기기 소매유통망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자국산 제품 유통을 늘리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임. (현지 언론 Saigon times)

## □ (특이 동향)

-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Decree 116/2017/ND-CP)로 수입량 급감**
  - \* 아세안 물품교역협정(ATIGA)에 따라 '18.1.1부터 역내산 완성차 무관세 수입돼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1.1~1.15중 완성차 수입량은 총 60대에 불과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 \* Decree 116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Veride Type Approval) 요구, 모든 수입차량에 배출가스 및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 등을 규정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17년 GDP증가율 1.9% 달성에 이어서 고용·소득환경 개선 및 소비 심리 회복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월 對일본 수출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21.5%의 증가율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석유제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 높은 품목의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자동차부품·컴퓨터 등의 수출은 부진

- 석유제품(56.7% ↑)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 일본 국내산 나프타 공급 감소에 따른 수입 확대에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일본의 석유제품 수입의 80% 이상은 나프타로 주로 중동 국가, 한국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임. 일본 국내 에틸렌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들이 생산능력을 축소시켜 나갈 전망이며, 이로 인해 나프타 공급도 감소될 것이므로 나프타 수입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 \* 일본 정유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제능력을 축소시키고 있어 공급과잉이 해소돼 수급 균형이 개선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18년 들어서도 일본 국내 시장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S-Oil)

- **일반기계(30.1% ↑)** : 반도체 생산 및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계 수입도 확대돼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올해 공작기계의 연간 수주액은 '17년 실적 전망을 상회하는 1조 7,000억 엔에 달할 전망으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제품(26.6% ↑)** : 일부제품 공급 부족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1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서 프로필렌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임. (림 에너지뉴스)

- **무선통신기기(73.3% ↑)** : 애플 제품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통신사에서 삼성 제품(갤럭시) 판매 호조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17년 하반기 발매된 애플 아이폰8과 X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통신사에서의 삼성 갤럭시 판매 호조  
 . NTT도코모 1.1~1.7 기간, Galaxy Feel SC-04J 판매 순위 7위 (전주 9위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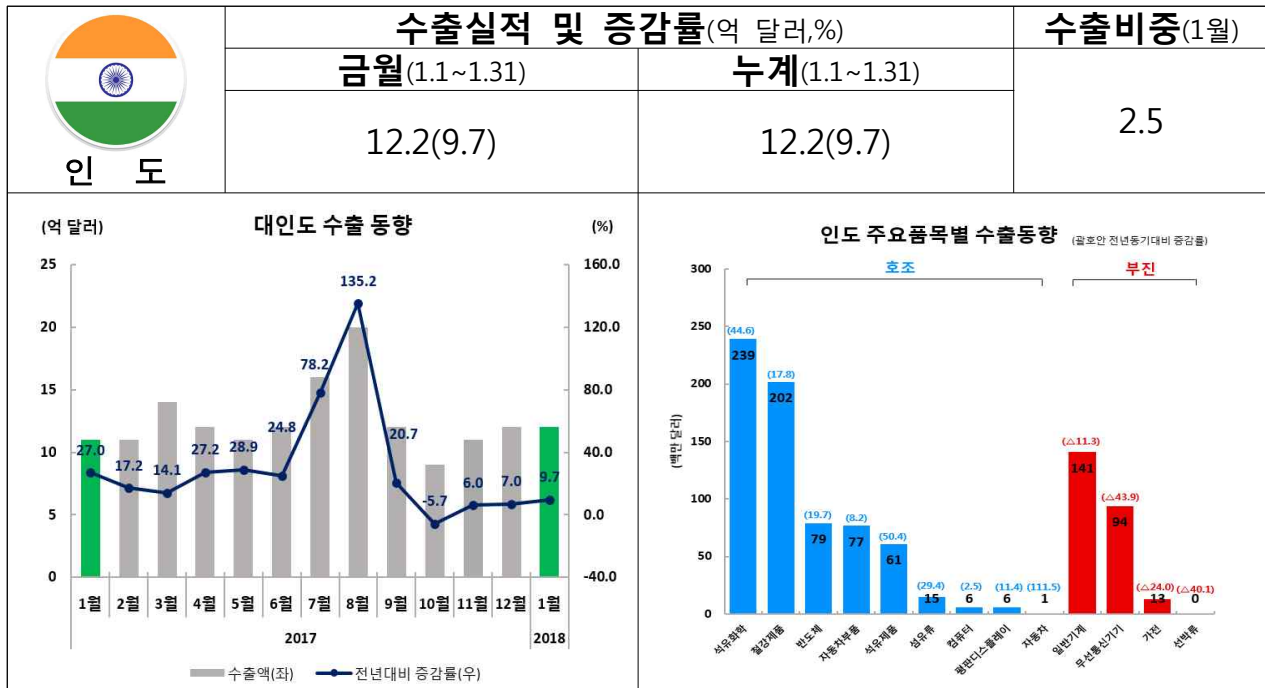
- **반도체(1.6% ↓)** : 반도체 수요는 견고하나 일본산 매출 증가 및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한국에서 직수출하는 금액 감소

#### 현장 정보

\* 컴퓨터·휴대전화의 고도화, 자동차 디지털화, 사물인터넷 등을 배경으로 반도체와 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본내 반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함. 특히, 반도체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제조 장치용 부품도 호조, 최소 2~3년은 높은 수준의 수주 지속될 전망 (일본 가이시社)  
 \* 한국 생산제품 중 일부가 중국공장 생산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반도체 수주는 줄지 않았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다소 감소

## □ (특이 동향)

- 일본 정부, 트럼프의 TPP 인정 환영하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
  - \*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서 더 나은 협상 조건시 TPP의 복귀 가능성 시사 (1.25)
  - \* 미국 제외한 11개 TPP 회원국(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 오는 3.8일 칠레에서 CPTPP에 서명할 예정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경제개혁 조치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며 2017-18회계연도 GDP증가율 6.5%, 2018-19회계연도에는 7% 성장률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1월 對인도 수출은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7%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일반기계·무선 통신기기·가전·선박류는 수출 부진

- 석유화학제품(44.6% ↑) : 농촌 인프라 개선 및 건설용 PVC 수요 확대에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인도 PVC 수요의 70% 가량이 농촌 관개수로 파이프라인 관련이며, 나머지 30%는 건설부 문에서 발생하는 것임.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관개수로 정비에 위한 PVC 제품에 대한 계절 적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도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 작년 7월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주춤했던 PVC 시장은 세율변경에 따른 적응기간이 끝나면서 1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현지 수입업자)
- \* PVC에 대한 인도내 수요에 비하여 현지생산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Sri Krithika International)

- **철강제품(17.8% ↑)** : 특수철강제품의 인도내 공급 부족 및 가격경쟁력 우수한 수입제품 선호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2017-18 회계연도 4월-11월 기간 인도의 강철 소비량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5,678.8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철 수입량 또한 553.4만톤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
- \* 인도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산 철강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수입 증가(예; 인도내 제철소의 판매단가가 톤당 48,500루피인데 반해 수입제품의 단가는 톤당 47,000루피)
- \* 인도 자동차 산업의 고속성장으로 자동차용 철강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産 철강판은 자동차용으로 미흡하여 한국 및 일본산 수입철강으로 대체 (현지진출 한국업체)

- **석유제품(50.4% ↑)** : 자동차 소비 증가로 차량용 윤활유 및 브레이크 오일 등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자동차 윤활유를 중심으로 한국제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운행과 함께 인도의 윤활유 시장규모는 250억 리터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한국과 UAE에서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등 차량용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의 품질대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임. (VIP Overseas, 석유제품 수입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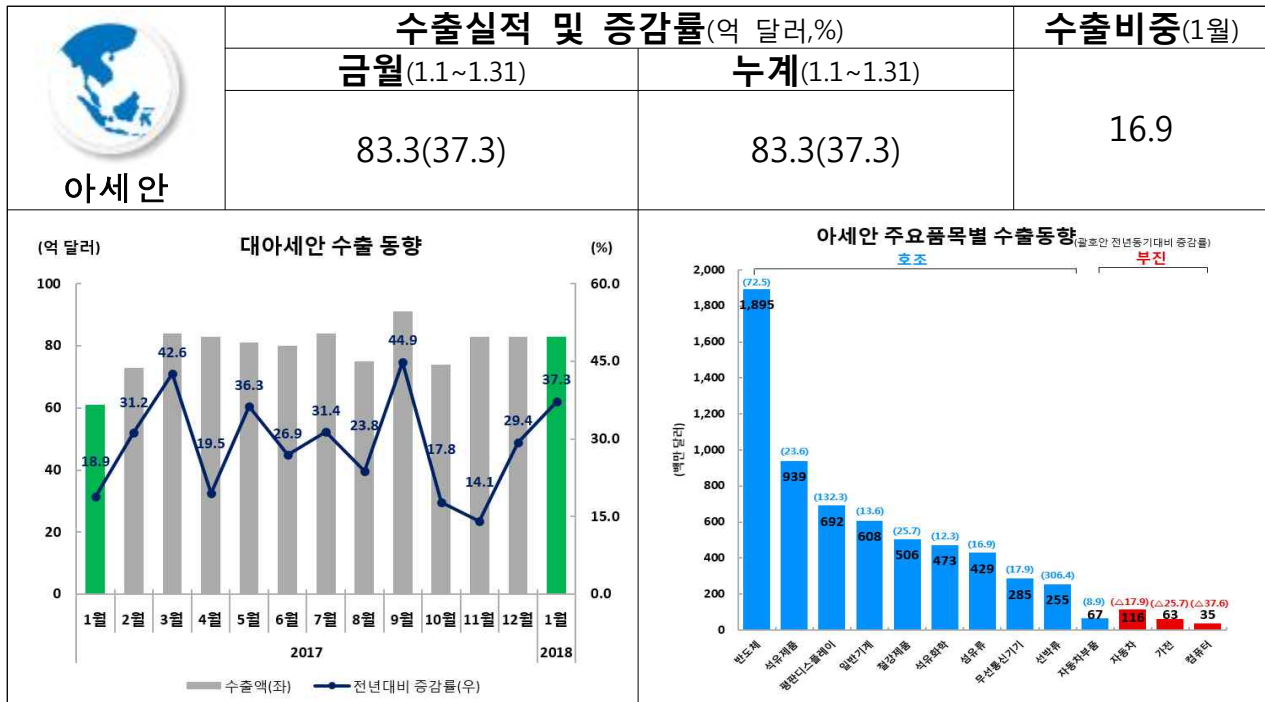
- **가전(24.0% ↓)** :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인도 정부의 현지생산 독려로 수출 부진

#### 현장 정보

- \* 통합간접세(GST) 도입으로 가정용전자제품에 28%의 세금이 적용된 상태이며, 관련 업계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17.12.14일에 핸드폰(10%→15%), 전자레인지(10%→20%), TV 및 카메라(10%→15%)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를 인상한 바 있음.
- \* 2월 1일 발표된 2018-19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Make in India 추진을 위해 수입 가정용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포함돼 있음.
- \* Make in India 정책은 가정용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인도 전기전자 및 IT부)

## □ (특이 동향)

- 2.1일, 2018-19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 발표
  - \*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와 2019년 총선 앞두고 'Easy Living'을 제시하며 농민과 빈민 등 소외 계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농업개발 및 인프라 관련 예산 증액, 식품가공산업/신재생에너지/로봇/인공지능/디지털제조/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역내 주요국의 경기호황에 힘입어 산업생산 지표 및 무역·투자 실적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월 對아세안 수출은 수출 규모 상위 5개 품목이 모두 호조를 보여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제품·평판디스플레이·일반기계·철강제품 등 10개 품목은 수출 증가, 자동차·가전·컴퓨터는 수출 감소
- **반도체(72.5% ↑)** : 현지생산向 모바일기기 메모리칩 수요 증가, 글로벌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싱가포르)** 글로벌 수요 증가로 싱가포르 전자산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입 증가
- \* **(필리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동반 상승에 기인 (Amkor Philippines사)
- \* **(말레이시아)** 초고속 고대역폭메모리2 공급 확대, GDDR6 그래픽 메모리 대량생산 등이 1월 수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수출량이 지속 증가할 전망 (삼성전자)
- \* **(인도네시아)**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스마트폰, 최첨단 가전제품을 조립하여 현지 생산·공급함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삼성전자 생산법인)

- 석유제품(23.6% ↑) :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 현지 생산량 부족한 제품에 대한 수요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싱가포르) 국제유가 상승으로 단가 상승
- \* (필리핀) 현지 조달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입 수요 지속 (필리핀 석유화학제조협회)

- 일반기계(13.6% ↑) : 현지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생산 및 역내국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필리핀) 식품 등의 산업에서 필리핀 현지 생산/제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계류에 대한 수요 발생 (Aurotec사, HM Manual Corp사)
- \* (말레이시아) 경기 회복으로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기계 수요 확대 추세. '17년에 체결한 대규모 굴삭기 공급 계약 건 관련 對말레이시아 수출 진행 중이며, 말레이시아 내 중장비 수요가 늘어나 한국산 기계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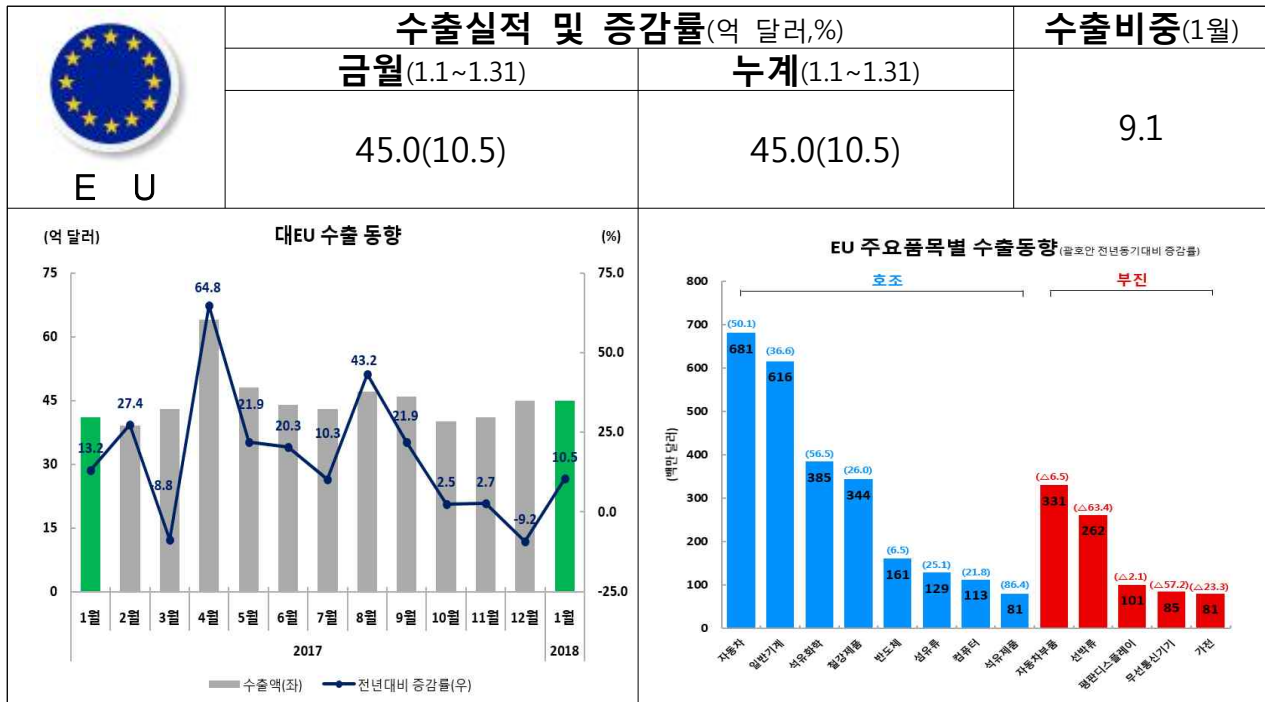
- 자동차(17.9% ↓) : '18년부터 역내국간 무관세 수입되는 아세안 자동차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정부의 수입제한 및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아세안) '18.1월부터 아세안상품교역협정(ATIGA)에 의거 아세안 역내 생산된 자동차들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짐.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약화로 對아세안 수출이 감소함.
-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의 자동차 증가율 0% 제한 정책(Zero vehicle growth rate policy), 차량 배출가스 제도(VES) 도입 등으로 시장여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 (특이 동향)

- 필리핀, 대중 교통 차량(PUV; Public Utility Vehicle) 개선 프로그램 추진
  - \* 대표 교통수단인 지프니(jeepney) 차량 현대화 계획으로 사용연한 15년 이상인 지프니 20여만 대를 2020년까지 전량 교체, Euro 4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 차량 혹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
  - \*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속도 제어장치, wifi 등 안전운행과 승객편의를 위한 각종 장치 탑재 예정, 계획대로 추진 시 전기차 관련 기술·부품 및 탑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고용상황 개선, 설비 가동률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및 수출 호조로 안정적 경제 회복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월 對EU 수출은 제조업 경기 호조·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10.5% 증가하여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자동차 일반기계·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은 수출 증가, 자동차부품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감소

- 일반기계(36.6% ↑) : 유럽 경기 회복세에 따른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산업기계 수요 증가하여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독일)** '17년 2-3분기부터 독일 및 동유럽 시장의 경기호황으로 현지 업체의 기계설비 투자가 증대되면서 수입물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음. 이러한 호경기 추세는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할 전망 (풍력발전 제조업체 D사)
- \*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요국 경기 회복세가 중동부 유럽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회복세에 있음. (현지 진출업체 H사)
- \* **(스페인)** 경기회복에 따른 현지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용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소폭 증가 (산업용 기기 및 부품 수입기업 S사)

- 석유화학제품(56.5% ↑) : 산업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수한 한국 원료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

#### 현장 정보

- \* (불가리아) '18년 1월부터 6개월간 EU이사회 의장국 수행, 겨울철 스키 관광객 증가 등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ET병 제조를 위한 원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한국산 PET병 원료 수입 딜러)
- \* (스페인) 스페인의 꾸준한 산업생산량 증가 및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對韓 수입 확대 추세 (스페인 석유화학 유통기업 Q사)

- 섬유류(25.1% ↑) : 경기회복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한국 패션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독일) 유럽 및 독일의 경제상황이 꾸준한 호조세로 접어들어 따라 섬유류를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수요 증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K-Fashion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인지도 상승, 한국산 원단가격 5~10% 이상 올랐으나 이탈리아산보다는 가격경쟁력 있으며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음. (독일 전문 패션 유통업체 S사)
- \* (그리스) 그리스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Tourlioumis, 직물 유통 에이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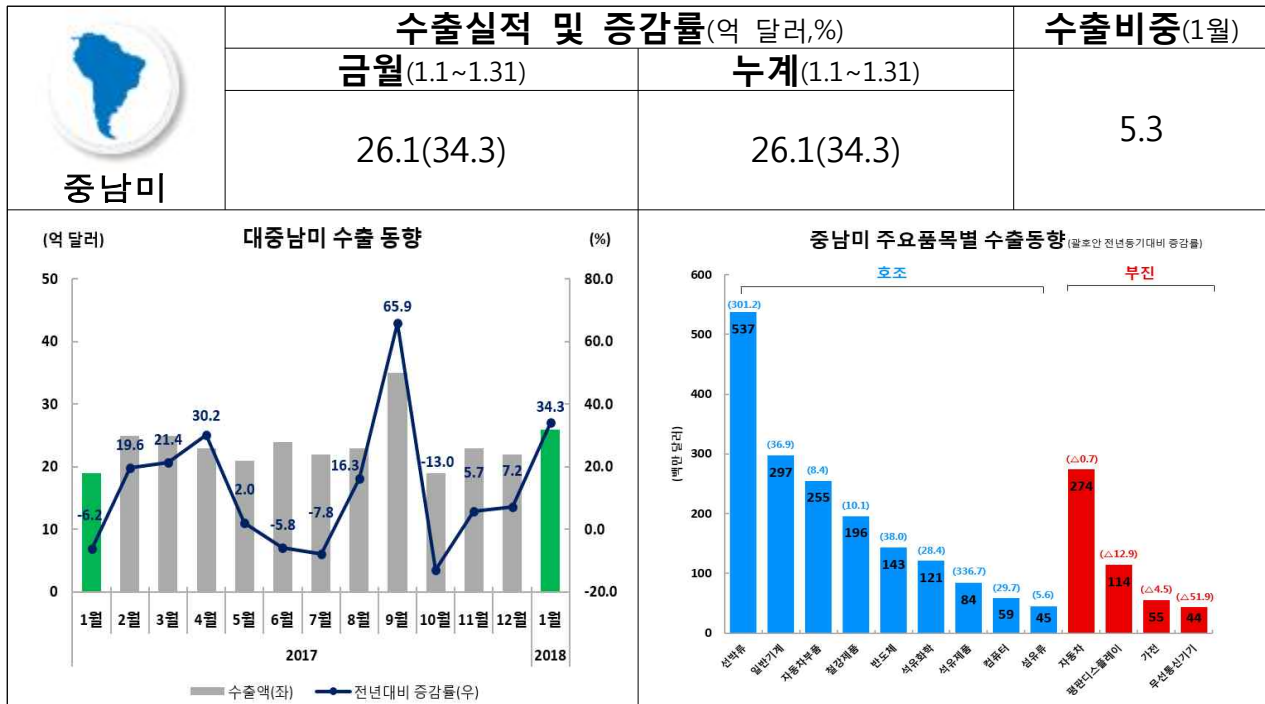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6.5% ↓) : 유럽 현지생산 및 현지 부품 조달 증가로 수출 감소세 지속

#### 현장 정보

- \* (독일) 독일 완성차 업체는 유럽 내 생산 공장과의 협업을 선호, 그 외 독일 부품 생산공장이 동유럽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유럽 내 현지 조달 증가 추세 (자동차부품 Tier 1 Z사)
- \* (오스트리아) 한국산 부품 조달 비용 부담에 따라 유럽 소재 한국 완성차 공장의 부품 현지 조달 전략이 점차 확고해지는 분위기 (자동차 부품 수입상 A사)
- \* (스페인) 영국, 터키 등 스페인의 주요 자동차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 감소로 소량 구매 등이 가능한 EU 역내 구매 선호 (자동차부품업체 R사)

## □ (특이 동향)

- EU 집행위, 2030년까지 자동차 CO<sub>2</sub> 배출 감축 목표 강화
  - \*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sub>2</sub>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준수시 벌금 부과하는 방안 추진 중, 이에 더해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15%, 2030년의 경우 2021년 대비 30% 감축 목표 추진 예정
- 스웨덴, '18.7월부터 '저탄소배출차량 지원제도' 도입 예정
  - \*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6만 크로나의 보조금 지원하고 CO<sub>2</sub> 배출량 높은 차량에는 초기 3년간 환경세 신규 부과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주요국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역내 주요 제조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증가 및 내수 소비 증가로 기계류와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어 1월 對중남미 수출은 34.3%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선박류·일반기계·자동차부품·철강 등 9개 품목의 수출 증가, 자동차·평판디스플레이·가전·무선통신기기 4개 품목은 수출 감소

- **일반기계(36.9% ↑)** : 주요국의 투자 심리 회복, 특히 멕시코가 NAFTA 파기 우려로 보류했던 투자를 개시하면서 기계류 수요 늘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멕시코)** '17년 NAFTA 파기 우려로 투자를 보류했으나,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했던 투자를 개시하면서 기계류에 대한 수요 증가
- \* **(페루)** 올해 광업 분야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기계류 판매 호황 예상됨. 특히 Michiquillay 광산 경매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Prima AFP사)

- **자동차부품(8.4% ↑)** : 주요 자동차 수입국인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동차부품 수요도 증가

### 현장 정보

- \* **(멕시코)** 멕시코 내 현대기아자동차 판매 꾸준히 증가  
 . '17년 현대기아자동차는 멕시코 시장에서 각각 46,534대, 86,713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28.2%, 49.2%의 판매 증가율 기록
- \* **(브라질)** 수입차에 30%의 공업세(IPI)를 부과하는 '이노바르-아우토(Inovar-Auto)' 프로그램이 '17년 말 폐지됨에 따라 수입차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판매량 증가, 향후 부품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7년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224만대이며, '18년에도 판매 증가세 지속 전망 (브라질자동차산업협회, ANFAVEA)  
 . '18년 브라질 자동차부품 시장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826억 헤알(약 262억 달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자동차부품협회, Sindipeças)
- \* **(콜롬비아)** 은행의 저금리 혜택 및 임금인상 효과로 인해 '18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 (CARIBE AUTOMOTRIZ HYUNDAI SAS)

- **반도체(38.0% ↑)** :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 반도체 사용하는 품목의 생산 증가로 반도체 수요 확대돼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멕시코)** 특히 최근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전장부품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17년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인 377만 대를 기록했고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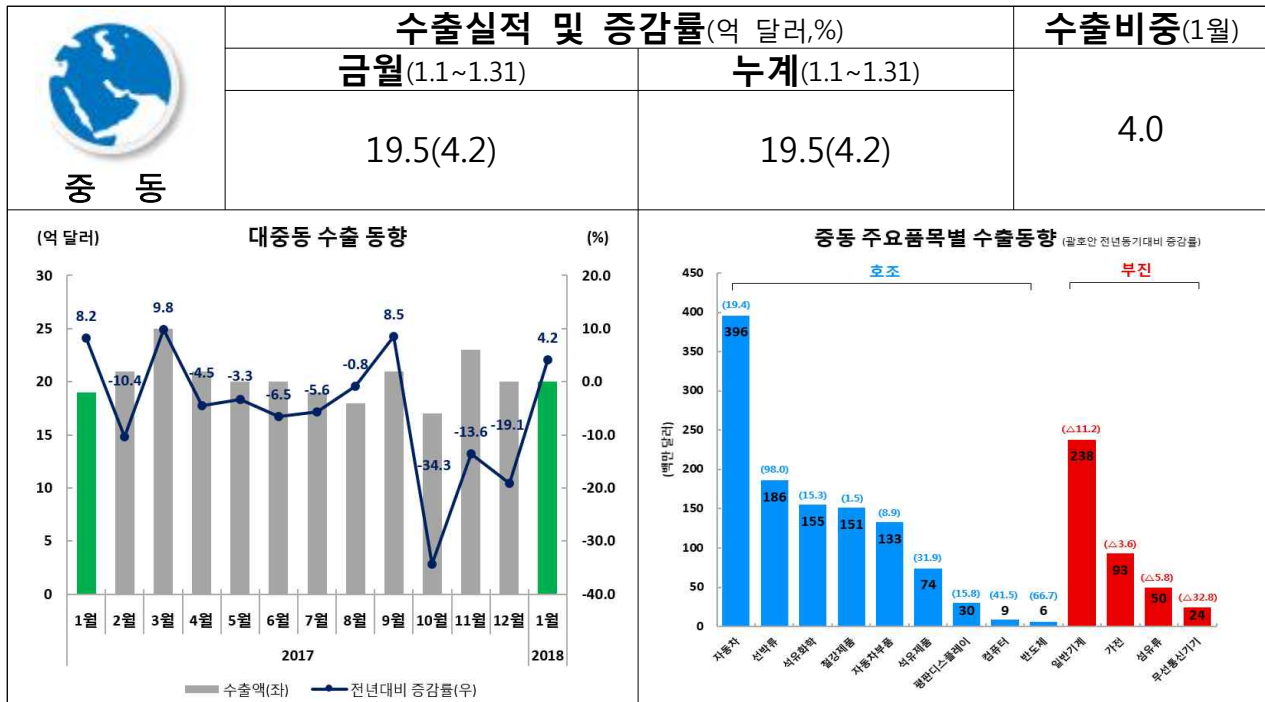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51.9% ↓)** : 중남미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멕시코·브라질에서 스마트폰 신규 고객 감소, 재고 해소 등의 이유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멕시코)** 멕시코 내 기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신규 구매 고객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심화로 블랙마켓에서 도난 스마트폰 불법 구매 비율 증가하여 한국산 무선통신기기 수요 감소
- \* **(브라질)** '17년 초 수입량 폭증으로 재고 해소를 위해 수입 감소 추세 지속

## □ (특이 동향)

- 221일, 한-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FTA 정식 서명  
 \* 한국 정부, 금년 상반기 발효 목표로 후속 절차 진행 예정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점진적 경제 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GCC의 부가세 도입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1월 對 중동 수출은 4.2% 증가하여 '17.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자동차·선박류·석유화학제품·철강 등의 수출 증가, 일반기계·가전·섬유류·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감소

- **자동차(19.4% ↑)** : '18.6월 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으로 완성차 업체의 공격적인 판매전략에 힘입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사우디)** 전년 동월의 사우디 경기 악화 및 수출 부진의 기저 효과, '18.6월 여성 운전 허용에 대비하여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판매 움직임 가시화
- \* **(이집트)** 유럽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20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유럽차에 대한 수요 저조하여 관세 철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집트에서 가장 수요가 큰 브랜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순임. (Lada 및 BYD 유통업자)
- \* **(이란)** 이란은 약 6개월 동안의 외국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 이후 '18.1.1일부로 다시 외국 자동차 수입 허가를 승인하면서 자동차 수입량이 증가함. (Kerman Motor)

- 석유화학제품(15.3% ↑) : 유가 및 제품 단가 상승, PVC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UAE) 유가 및 제품 단가 상승, 두바이유 평균가 (\$/Bbl) : 28.37('16.1월말) → 53.23('17.1월말) → 65.77('18.1월말)
- \* (터키) 국내생산으로 부족하여 수입으로 충당, 특히 인프라 건설 파이프 생산용 HDPE PVC 수요 급증

- 일반기계(11.2% ↓) : 부가세 도입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위축 및 저가 수입 제품 선호로 인해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UAE) 부가세 도입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위축으로 수요 감소 (삼성중공업)
- \* (이집트) 기계류 수입 보다는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에 관심 높음. 달러대비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절하로 제품 가격과 수입비용 증가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기업들에 비해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가격경쟁력 떨어짐. (Integrated Equipment Company 사업개발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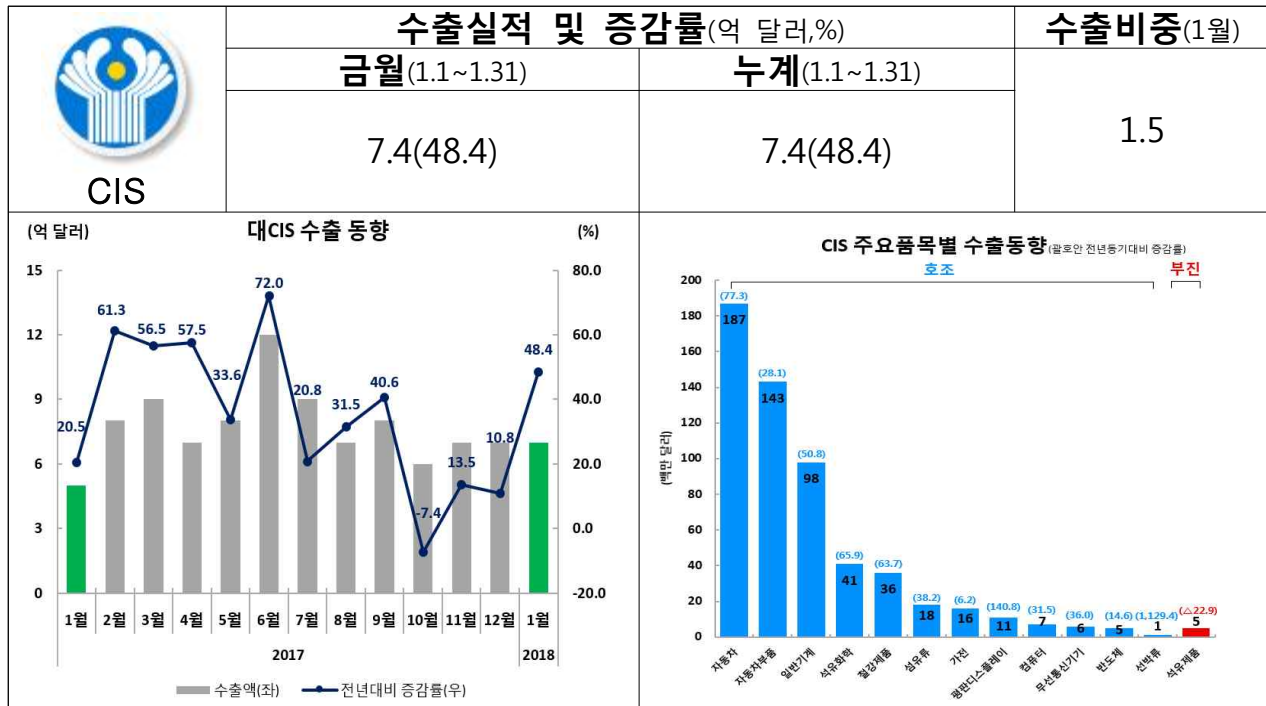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32.8% ↓) : 터키의 핸드폰 할부판매 제한, 이란 환율시장 불안정에 따른 수입 수요 축소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터키) 리라화 환율 상승, 핸드폰 할부판매 제한으로 수입수요 감소
- \* (사우디) 1.1일 도입된 부가가치세(VAT)로 인한 수요 심리 위축,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zation) 비율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세 점진적 강화 등으로 소비 감소
- \* (이란) 일부 무선 통신장치에 관한 신규 법안이 통과돼 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서 장치를 등록해야 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정부의 신규 규정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존 재고량 외 신규 제품의 수입을 주저하는 상황임. (Iran Commercial Co.) / 대외변수(특히, 대미 관계)로 환율시장이 불안정하여 수입제품 가격 상승 및 수입업체들의 신중한 자세로 수입량 감소

## □ (특이 동향)

- 사우디, '18.7.1일부로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세 인상 예정
  - \* '18.7.1일에 SAR 100/인 → SAR 200/인으로 인상 후, 2020년까지 SAR 400/인으로 점진적 인상 예정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동향)** CIS 주요국들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경제구조 개혁 시행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1월 對CIS 수출은 러시아 루블화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4%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석유화학제품 등 수출 비중 높은 품목을 포함하여 12개 품목의 수출 호조, 석유제품만 수출 감소
- **자동차(77.3% ↑)** : 연말연시 소비시즌을 맞아 자동차 판매량 증가, DKD 형태 중대형 승용차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러시아)** 연말연시 소비시즌을 맞아 자동차 판매량 신장, 자동차 수입량 증가 추세이며 특히 현대 자동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판매 호조를 예상 (러시아 자동차 딜러 A사)
- \* **(카자흐스탄)** '18.1월부터 자동차 폐차 지원 국가 프로그램 2단계 및 자동차 구매 시 할부/할인이 적용되어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우즈베키스탄)**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보다는 DKD 형태로 수출되는 GM 중대형 승용차의 연초 수출 증가가 자동차 수출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자동차부품 합작 진출기업 U사)

- **일반기계(50.8% ↑)** : 러시아의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수요 증가, 우즈베키스탄의 비닐하우스 설비용 농기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수요 지속 증가, 러시아 제조업 공장의 2/3 설비가 수입산으로 한국 기계는 첨단기술과 IT 솔루션이 매우 좋음. (바이어 MP-Technologies)
- \* **(카자흐스탄)** 농기계(주로 비닐하우스 설비)가 지속적인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18년에도 대규모 하우스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만큼 향후 수출 증가세 지속 시현될 전망이다. (진출기업 U사)

- **석유화학제품(65.9% ↑)** : 현지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부족, 품질과 가격경쟁력 우수한 한국산 제품 선호로 인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러시아)** 최근 3년간 폴리머 자체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루블화 안정화로 플라스틱 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 화학제품은 유럽산 제품과 질적으로 유사하며, 가격 네고가 유럽보다 수월한 편임. (바이어 Best Chemical)
-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플라스틱 제품, 카펫 등의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제품 수요 증가 (현지 제조사 U사)

- **철강제품(63.7% ↑)** :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련 철강제품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러시아)** 호텔, 항만, 조선소 등 건설 프로젝트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극동 러시아의 경우 호텔, 건물 건설 관련 H빔 등에 대한 견적 문의가 있으며 이밖에 항만, 조선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계약 및 제품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현지 진출 D사)
- \* **(카자흐스탄)** 다양한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카자흐스탄 산업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공장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임. (Triton LLP)

## □ (특이 동향)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세관법 '18.1.1일부 발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AEU의 신규 세관법으로, 기존 관세동맹(Customs Union) 세관법을 대체
    - \* 제품반출 및 세관신고등록 자동화
    - \* 세관신고서 제출 시 물품 정보 제출 불요
    - \* 통관단일창구 도입으로 제품반출 절차 용이 및 시간 단축, AEO 규정 명시 등

## 참고 1

## '18년 1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실적 [1.1~1.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 국가명        | 품목명         | 반도체              | 일반<br>기계        | 석유<br>화학        | 석유<br>제품        | 자동차             | 철강<br>제품        | 선박류             | 섬유류             | 컴퓨터           | 평판<br>디스플레이     | 자동차<br>부품       | 무선<br>통신<br>기기  | 가전             |
|------------|-------------|------------------|-----------------|-----------------|-----------------|-----------------|-----------------|-----------------|-----------------|---------------|-----------------|-----------------|-----------------|----------------|
| 중 국        | 당월<br>(증감률) | 4,212<br>(76.8)  | 1,178<br>(53.4) | 1,820<br>(0.7)  | 749<br>(53.1)   | 2<br>(230.8)    | 352<br>(△6.2)   | 19<br>(△72.4)   | 164<br>(28.3)   | 261<br>(55.6) | 997<br>(△35.0)  | 245<br>(△35.2)  | 575<br>(9.5)    | 52<br>(△126)   |
|            | 누계<br>(증감률) | 4,212<br>(76.8)  | 1,178<br>(53.4) | 1,820<br>(0.7)  | 749<br>(53.1)   | 2<br>(230.8)    | 352<br>(△6.2)   | 19<br>(△72.4)   | 164<br>(28.3)   | 261<br>(55.6) | 997<br>(△35.0)  | 245<br>(△35.2)  | 575<br>(9.5)    | 52<br>(△126)   |
| 미 국        | 당월<br>(증감률) | 252<br>(14.1)    | 646<br>(20.3)   | 225<br>(67.7)   | 99<br>(△61.9)   | 1,092<br>(△4.7) | 310<br>(36.8)   | 33<br>(1,944.8) | 101<br>(9.3)    | 214<br>(36.1) | 10<br>(5.1)     | 427<br>(△8.7)   | 342<br>(△17.3)  | 144<br>(△10.4) |
|            | 누계<br>(증감률) | 252<br>(14.1)    | 646<br>(20.3)   | 225<br>(67.7)   | 99<br>(△61.9)   | 1,092<br>(△4.7) | 310<br>(36.8)   | 33<br>(1,944.8) | 101<br>(9.3)    | 214<br>(36.1) | 10<br>(5.1)     | 427<br>(△8.7)   | 342<br>(△17.3)  | 144<br>(△10.4) |
| 베트남        | 당월<br>(증감률) | 1,022<br>(110.8) | 325<br>(8.3)    | 181<br>(29.3)   | 252<br>(51.9)   | 40<br>(△45.7)   | 155<br>(22.0)   | 4<br>(2.8)      | 247<br>(27.7)   | 9<br>(△62.6)  | 674<br>(145.7)  | 34<br>(11.5)    | 257<br>(20.2)   | 36<br>(△11.7)  |
|            | 누계<br>(증감률) | 1,022<br>(110.8) | 325<br>(8.3)    | 181<br>(29.3)   | 252<br>(51.9)   | 40<br>(△45.7)   | 155<br>(22.0)   | 4<br>(2.8)      | 247<br>(27.7)   | 9<br>(△62.6)  | 674<br>(145.7)  | 34<br>(11.5)    | 257<br>(20.2)   | 36<br>(△11.7)  |
| 일 본        | 당월<br>(증감률) | 101<br>(△1.6)    | 272<br>(30.1)   | 153<br>(26.6)   | 475<br>(56.7)   | 2<br>(15.8)     | 356<br>(16.5)   | 8<br>(△70.0)    | 67<br>(14.0)    | 26<br>(△15.2) | 7<br>(6.2)      | 74<br>(△2.9)    | 72<br>(73.3)    | 52<br>(29.1)   |
|            | 누계<br>(증감률) | 101<br>(△1.6)    | 272<br>(30.1)   | 153<br>(26.6)   | 475<br>(56.7)   | 2<br>(15.8)     | 356<br>(16.5)   | 8<br>(△70.0)    | 67<br>(14.0)    | 26<br>(△15.2) | 7<br>(6.2)      | 74<br>(△2.9)    | 72<br>(73.3)    | 52<br>(29.1)   |
| 인 도        | 당월<br>(증감률) | 79<br>(19.7)     | 141<br>(△11.3)  | 239<br>(44.6)   | 61<br>(50.4)    | 1<br>(111.5)    | 202<br>(17.8)   | 0<br>(△40.1)    | 15<br>(29.4)    | 6<br>(2.5)    | 6<br>(11.4)     | 77<br>(8.2)     | 94<br>(△43.9)   | 13<br>(△24.0)  |
|            | 누계<br>(증감률) | 79<br>(19.7)     | 141<br>(△11.3)  | 239<br>(44.6)   | 61<br>(50.4)    | 1<br>(111.5)    | 202<br>(17.8)   | 0<br>(△40.1)    | 15<br>(29.4)    | 6<br>(2.5)    | 6<br>(11.4)     | 77<br>(8.2)     | 94<br>(△43.9)   | 13<br>(△24.0)  |
| 아세안        | 당월<br>(증감률) | 1,895<br>(72.5)  | 608<br>(13.6)   | 473<br>(12.3)   | 939<br>(23.6)   | 116<br>(△17.9)  | 506<br>(25.7)   | 255<br>(306.4)  | 429<br>(16.9)   | 35<br>(△37.6) | 692<br>(132.3)  | 67<br>(8.9)     | 285<br>(17.9)   | 63<br>(△25.7)  |
|            | 누계<br>(증감률) | 1,895<br>(72.5)  | 608<br>(13.6)   | 473<br>(12.3)   | 939<br>(23.6)   | 116<br>(△17.9)  | 506<br>(25.7)   | 255<br>(306.4)  | 429<br>(16.9)   | 35<br>(△37.6) | 692<br>(132.3)  | 67<br>(8.9)     | 285<br>(17.9)   | 63<br>(△25.7)  |
| EU         | 당월<br>(증감률) | 161<br>(6.5)     | 616<br>(36.6)   | 385<br>(56.5)   | 81<br>(86.4)    | 681<br>(50.1)   | 344<br>(26.0)   | 262<br>(△63.4)  | 129<br>(25.1)   | 113<br>(21.8) | 101<br>(△2.1)   | 331<br>(△6.5)   | 85<br>(△57.2)   | 81<br>(△23.3)  |
|            | 누계<br>(증감률) | 161<br>(6.5)     | 616<br>(36.6)   | 385<br>(56.5)   | 81<br>(86.4)    | 681<br>(50.1)   | 344<br>(26.0)   | 262<br>(△63.4)  | 129<br>(25.1)   | 113<br>(21.8) | 101<br>(△2.1)   | 331<br>(△6.5)   | 85<br>(△57.2)   | 81<br>(△23.3)  |
| 중남미        | 당월<br>(증감률) | 143<br>(38.0)    | 297<br>(36.9)   | 121<br>(28.4)   | 84<br>(336.7)   | 274<br>(△0.7)   | 196<br>(10.1)   | 537<br>(301.2)  | 45<br>(5.6)     | 59<br>(29.7)  | 114<br>(△129)   | 255<br>(8.4)    | 44<br>(△51.9)   | 55<br>(△4.5)   |
|            | 누계<br>(증감률) | 143<br>(38.0)    | 297<br>(36.9)   | 121<br>(28.4)   | 84<br>(336.7)   | 274<br>(△0.7)   | 196<br>(10.1)   | 537<br>(301.2)  | 45<br>(5.6)     | 59<br>(29.7)  | 114<br>(△129)   | 255<br>(8.4)    | 44<br>(△51.9)   | 55<br>(△4.5)   |
| 중 동        | 당월<br>(증감률) | 6<br>(66.7)      | 238<br>(△11.2)  | 155<br>(15.3)   | 74<br>(31.9)    | 396<br>(19.4)   | 151<br>(1.5)    | 186<br>(98.0)   | 50<br>(△5.8)    | 9<br>(41.5)   | 30<br>(15.8)    | 133<br>(8.9)    | 24<br>(△32.8)   | 93<br>(△3.6)   |
|            | 누계<br>(증감률) | 6<br>(66.7)      | 238<br>(△11.2)  | 155<br>(15.3)   | 74<br>(31.9)    | 396<br>(19.4)   | 151<br>(1.5)    | 186<br>(98.0)   | 50<br>(△5.8)    | 9<br>(41.5)   | 30<br>(15.8)    | 133<br>(8.9)    | 24<br>(△32.8)   | 93<br>(△3.6)   |
| CIS        | 당월<br>(증감률) | 5<br>(14.6)      | 98<br>(50.8)    | 41<br>(65.9)    | 5<br>(△22.9)    | 187<br>(77.3)   | 36<br>(63.7)    | 1<br>(1,129.4)  | 18<br>(38.2)    | 7<br>(31.5)   | 11<br>(140.8)   | 143<br>(28.1)   | 6<br>(36.0)     | 16<br>(6.2)    |
|            | 누계<br>(증감률) | 5<br>(14.6)      | 98<br>(50.8)    | 41<br>(65.9)    | 5<br>(△22.9)    | 187<br>(77.3)   | 36<br>(63.7)    | 1<br>(1,129.4)  | 18<br>(38.2)    | 7<br>(31.5)   | 11<br>(140.8)   | 143<br>(28.1)   | 6<br>(36.0)     | 16<br>(6.2)    |
| 품목별<br>총수출 | 당월<br>(증감률) | 9,685<br>(53.4)  | 4,444<br>(27.8) | 4,207<br>(18.6) | 3,564<br>(28.2) | 3,234<br>(13.3) | 2,721<br>(17.4) | 2,448<br>(11.9) | 1,181<br>(20.1) | 889<br>(38.7) | 2,027<br>(△7.6) | 1,830<br>(△6.4) | 1,620<br>(△9.8) | 640<br>(△8.8)  |
|            | 누계<br>(증감률) | 9,685<br>(53.4)  | 4,444<br>(27.8) | 4,207<br>(18.6) | 3,564<br>(28.2) | 3,234<br>(13.3) | 2,721<br>(17.4) | 2,448<br>(11.9) | 1,181<br>(20.1) | 889<br>(38.7) | 2,027<br>(△7.6) | 1,830<br>(△6.4) | 1,620<br>(△9.8) | 640<br>(△8.8)  |

## 참고2

##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 지역          | '17년<br>전체 | '17년   |         |        |        |        |        |        |         |        |         |         |         | '18년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중국          | 142,115    | 10,755 | 11,119  | 11,656 | 10,590 | 10,653 | 10,676 | 10,792 | 11,913  | 13,541 | 12,583  | 13,998  | 13,841  | 13,387 |
|             | (14.2)     | (13.4) | (28.7)  | (11.9) | (10.2) | (7.3)  | (4.8)  | (6.5)  | (15.6)  | (23.6) | (13.5)  | (20.3)  | (14.8)  | (24.5) |
| 미국          | 68,611     | 4,941  | 5,313   | 6,201  | 6,036  | 5,524  | 5,981  | 5,661  | 5,953   | 6,598  | 4,727   | 6,374   | 5,302   | 5,175  |
|             | (3.2)      | (△2.0) | (1.7)   | (△5.3) | (3.6)  | (△2.6) | (△1.2) | (7.0)  | (23.5)  | (28.6) | (△12.5) | (11.4)  | (△7.7)  | (4.8)  |
| 베트남         | 47,749     | 2,791  | 3,181   | 4,330  | 4,517  | 4,153  | 4,319  | 3,637  | 3,756   | 4,735  | 3,865   | 4,407   | 4,057   | 4,274  |
|             | (46.3)     | (40.6) | (37.2)  | (55.6) | (63.0) | (56.9) | (61.9) | (29.1) | (36.5)  | (69.3) | (33.9)  | (46.2)  | (27.2)  | (53.1) |
| 일본          | 26,827     | 2,130  | 2,045   | 2,396  | 2,108  | 2,183  | 2,351  | 2,162  | 2,107   | 2,518  | 1,849   | 2,509   | 2,468   | 2,588  |
|             | (10.2)     | (18.9) | (20.6)  | (16.8) | (18.7) | (6.9)  | (9.3)  | (4.6)  | (4.8)   | (16.2) | (△12.1) | (10.3)  | (11.0)  | (21.5) |
| 인도          | 15,056     | 1,113  | 1,127   | 1,362  | 1,211  | 1,149  | 1,169  | 1,570  | 2,034   | 1,152  | 899     | 1,108   | 1,161   | 1,221  |
|             | (29.8)     | (27.0) | (17.2)  | (14.1) | (27.2) | (28.9) | (24.8) | (78.2) | (135.2) | (20.7) | (△5.7)  | (5.9)   | (7.1)   | (9.7)  |
| 아세안         | 95,252     | 6,065  | 7,267   | 8,388  | 8,346  | 8,119  | 8,015  | 8,351  | 7,540   | 9,119  | 7,403   | 8,321   | 8,318   | 8,329  |
|             | (27.8)     | (18.9) | (31.2)  | (42.6) | (19.5) | (36.3) | (26.9) | (31.4) | (23.8)  | (44.9) | (17.9)  | (14.0)  | (29.5)  | (37.3) |
| EU          | 54,043     | 4,071  | 3,933   | 4,271  | 6,421  | 4,822  | 4,397  | 4,311  | 4,658   | 4,617  | 3,990   | 4,080   | 4,471   | 4,500  |
|             | (15.9)     | (13.2) | (27.4)  | (△8.8) | (64.8) | (21.9) | (20.3) | (10.3) | (43.2)  | (21.9) | (2.6)   | (2.7)   | (△9.2)  | (10.5) |
| 중남미         | 28,099     | 1,940  | 2,482   | 2,455  | 2,273  | 2,112  | 2,427  | 2,194  | 2,290   | 3,510  | 1,886   | 2,327   | 2,202   | 2,606  |
|             | (10.4)     | (△6.2) | (19.6)  | (21.4) | (30.2) | (2.0)  | (△5.8) | (△7.8) | (16.3)  | (65.9) | (△13.0) | (5.7)   | (7.3)   | (34.3) |
| 중동          | 24,397     | 1,873  | 2,097   | 2,519  | 2,130  | 2,001  | 2,037  | 1,862  | 1,845   | 2,071  | 1,660   | 2,261   | 2,040   | 1,952  |
|             | (△7.0)     | (8.2)  | (△10.3) | (9.8)  | (△4.5) | (△3.3) | (△6.5) | (△5.6) | (△0.7)  | (8.5)  | (△34.3) | (△13.6) | (△18.6) | (4.2)  |
| CIS         | 9,211      | 498    | 784     | 884    | 739    | 769    | 1,210  | 851    | 710     | 783    | 578     | 733     | 672     | 739    |
|             | (33.7)     | (20.5) | (61.3)  | (56.6) | (57.5) | (33.6) | (72.0) | (20.8) | (31.5)  | (40.6) | (△7.4)  | (13.8)  | (10.8)  | (48.4) |
| 월 별<br>총 수출 | 573,694    | 40,257 | 43,167  | 48,638 | 50,844 | 44,927 | 51,272 | 48,830 | 47,106  | 55,115 | 44,791  | 49,707  | 49,040  | 49,223 |
|             | (15.8)     | (11.0) | (20.2)  | (13.1) | (23.8) | (13.1) | (13.4) | (19.4) | (17.4)  | (34.9) | (6.7)   | (9.7)   | (8.8)   | (22.3)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3

##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지역별 수출 실적 [1.1~1.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 품목명        |             | 유망소비재 품목      |               |               |              |               |               | 고부가가치 품목       |                |                  |
|------------|-------------|---------------|---------------|---------------|--------------|---------------|---------------|----------------|----------------|------------------|
| 지역명        |             | 농수산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생활용품          | 패션의류          | OLED           | SSD            | MCP              |
| 중국         | 당월<br>(증감률) | 91<br>(35.6)  | 199<br>(93.5) | 22<br>(134.0) | 11<br>(30.6) | 94<br>(21.6)  | 32<br>(41.5)  | 212<br>(△44.9) | 164<br>(111.9) | 818<br>(159.5)   |
|            | 누계<br>(증감률) | 91<br>(35.6)  | 199<br>(93.5) | 22<br>(134.0) | 11<br>(30.6) | 94<br>(21.6)  | 32<br>(41.5)  | 212<br>(△44.9) | 164<br>(111.9) | 818<br>(159.5)   |
| 미국         | 당월<br>(증감률) | 82<br>(31.1)  | 39<br>(19.7)  | 16<br>(△33.9) | 12<br>(39.0) | 89<br>(15.1)  | 21<br>(2.3)   | 1<br>(28.6)    | 162<br>(51.9)  | 1<br>(△94.9)     |
|            | 누계<br>(증감률) | 82<br>(31.1)  | 39<br>(19.7)  | 16<br>(△33.9) | 12<br>(39.0) | 89<br>(15.1)  | 21<br>(2.3)   | 1<br>(28.6)    | 162<br>(51.9)  | 1<br>(△94.9)     |
| 베트남        | 당월<br>(증감률) | 46<br>(69.2)  | 14<br>(152.9) | 13<br>(58.8)  | 1<br>(5.3)   | 48<br>(78.8)  | 36<br>(33.7)  | 428<br>(189.9) | 0<br>(44.1)    | 274<br>(464.0)   |
|            | 누계<br>(증감률) | 46<br>(69.2)  | 14<br>(152.9) | 13<br>(58.8)  | 1<br>(5.3)   | 48<br>(78.8)  | 36<br>(33.7)  | 428<br>(189.9) | 0<br>(44.1)    | 274<br>(464.0)   |
| 일본         | 당월<br>(증감률) | 160<br>(14.5) | 21<br>(55.5)  | 23<br>(8.0)   | 4<br>(10.8)  | 60<br>(2.4)   | 27<br>(9.9)   | 2<br>(646.2)   | 8<br>(104.3)   | 21<br>(39.3)     |
|            | 누계<br>(증감률) | 160<br>(14.5) | 21<br>(55.5)  | 23<br>(8.0)   | 4<br>(10.8)  | 60<br>(2.4)   | 27<br>(9.9)   | 2<br>(646.2)   | 8<br>(104.3)   | 21<br>(39.3)     |
| 인도         | 당월<br>(증감률) | 1<br>(17.9)   | 1<br>(55.0)   | 2<br>(△49.6)  | 1<br>(18.2)  | 13<br>(△41.9) | 0<br>(△34.2)  | 1<br>(188.0)   | 1<br>(204.9)   | 30<br>(198.0)    |
|            | 누계<br>(증감률) | 1<br>(17.9)   | 1<br>(55.0)   | 2<br>(△49.6)  | 1<br>(18.2)  | 13<br>(△41.9) | 0<br>(△34.2)  | 1<br>(188.0)   | 1<br>(204.9)   | 30<br>(198.0)    |
| 아세안        | 당월<br>(증감률) | 130<br>(20.7) | 48<br>(52.1)  | 26<br>(12.7)  | 5<br>(△7.8)  | 92<br>(35.6)  | 51<br>(23.3)  | 431<br>(189.7) | 10<br>(47.8)   | 298<br>(494.6)   |
|            | 누계<br>(증감률) | 130<br>(20.7) | 48<br>(52.1)  | 26<br>(12.7)  | 5<br>(△7.8)  | 92<br>(35.6)  | 51<br>(23.3)  | 431<br>(189.7) | 10<br>(47.8)   | 298<br>(494.6)   |
| EU         | 당월<br>(증감률) | 30<br>(25.1)  | 15<br>(41.5)  | 83<br>(120.5) | 9<br>(11.0)  | 67<br>(30.1)  | 13<br>(23.9)  | 36<br>(26.4)   | 79<br>(29.0)   | 14<br>(△10.2)    |
|            | 누계<br>(증감률) | 30<br>(25.1)  | 15<br>(41.5)  | 83<br>(120.5) | 9<br>(11.0)  | 67<br>(30.1)  | 13<br>(23.9)  | 36<br>(26.4)   | 79<br>(29.0)   | 14<br>(△10.2)    |
| 중남미        | 당월<br>(증감률) | 25<br>(136.1) | 1<br>(△5.7)   | 15<br>(△30.5) | 2<br>(△7.9)  | 27<br>(△8.7)  | 2<br>(58.5)   | 9<br>(△68.6)   | 49<br>(25.0)   | 37<br>(189.5)    |
|            | 누계<br>(증감률) | 25<br>(136.1) | 1<br>(△5.7)   | 15<br>(△30.5) | 2<br>(△7.9)  | 27<br>(△8.7)  | 2<br>(58.5)   | 9<br>(△68.6)   | 49<br>(25.0)   | 37<br>(189.5)    |
| 중동         | 당월<br>(증감률) | 35<br>(9.6)   | 5<br>(73.7)   | 6<br>(△21.3)  | 4<br>(△6.5)  | 27<br>(19.8)  | 2<br>(52.3)   | 0<br>(△75.4)   | 0<br>(478.1)   | 2<br>(839.0)     |
|            | 누계<br>(증감률) | 35<br>(9.6)   | 5<br>(73.7)   | 6<br>(△21.3)  | 4<br>(△6.5)  | 27<br>(19.8)  | 2<br>(52.3)   | 0<br>(△75.4)   | 0<br>(478.1)   | 2<br>(839.0)     |
| CIS        | 당월<br>(증감률) | 17<br>(46.6)  | 11<br>(50.4)  | 3<br>(89.5)   | 5<br>(78.2)  | 21<br>(28.9)  | 1<br>(△51.4)  | 2<br>(755.3)   | 4<br>(266.0)   | 1<br>(112.3)     |
|            | 누계<br>(증감률) | 17<br>(46.6)  | 11<br>(50.4)  | 3<br>(89.5)   | 5<br>(78.2)  | 21<br>(28.9)  | 1<br>(△51.4)  | 2<br>(755.3)   | 4<br>(266.0)   | 1<br>(112.3)     |
| 품목별<br>총수출 | 당월<br>(증감률) | 682<br>(22.8) | 461<br>(53.2) | 245<br>(51.2) | 59<br>(20.4) | 565<br>(16.3) | 207<br>(22.4) | 698<br>(17.1)  | 597<br>(79.3)  | 2,483<br>(112.2) |
|            | 누계<br>(증감률) | 682<br>(22.8) | 461<br>(53.2) | 245<br>(51.2) | 59<br>(20.4) | 565<br>(16.3) | 207<br>(22.4) | 698<br>(17.1)  | 597<br>(79.3)  | 2,483<br>(112.2) |



### 작성자

- |               |               |
|---------------|---------------|
| ◆ 중국지역본부 이지훈  | ◆ 유럽지역본부 이주혜  |
| ◆ 북미지역본부 차성욱  |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  | ◆ 중동지역본부 박설민  |
|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 중국지역본부 이지훈  |
|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 CIS지역본부 정혜주 |
| ◆ 동남아지역본부 김준성 | ◆ 무역동향분석팀 김건숙 |



## Global Trade Report 18-002

### 2018년 1월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동향분석팀  
 (02-3460-7584)

ISBN : 979-11-6097-630-4 (95320)



KOTR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수출 동향

##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